

현안과 과제

| **미시적인 물가 대응책 시급하다**
- 물가 요인의 상호 상승작용 확대

1. 최근 물가 상승세 추이

○ (현황) 농축산물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석유 제품 및 서비스 부문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내 소비자물가는 5월 이후 재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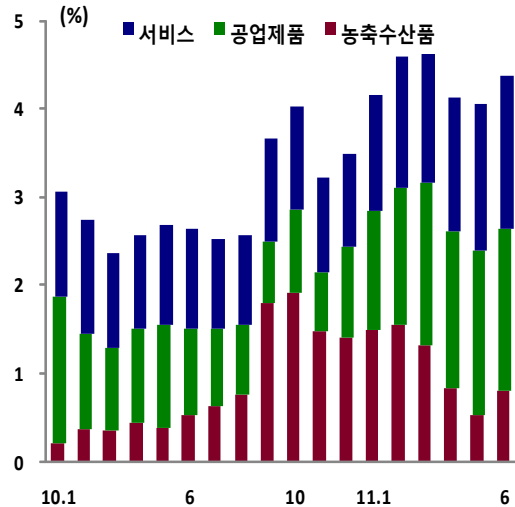
- 국내 대표 물가 지수인 소비자물가는 재상승세로 전환
 -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내 물가안정 목표치(2010~2012년 기간 중 3.0±1.0%)를 상회하고 있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고조
 - 소비자물가 지수는 2011년 3월 4.7%에서 5월 4.1%까지 하락하였으나 6월 4.4%로 재상승
- 최근 소비자물가에서 공업제품 및 서비스의 비중이 80% 이상을 상회
 - 소비자물가 증가율에서 석유류를 포함하는 공업제품은 2010년 말 20%내외에서 2011년 6월 40%이상으로 비중이 커짐. 반면 농축수산물의 비중은 2010년 9~12월 기간 중 40% 내외에서 2011년 6월 현재 10%대로 작아짐.
 - ※ 농축수산물 부문은 신선식품의 가격폭등의 여파로 2010년 9월 이후 소비자물가에 대한 기여도가 큰 폭으로 증가 하여 2010년 하반기 물가 상승을 주도
 - 또한,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지수는 2010년 12월 전년동월대비 2.0%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1년 1월 2.6%, 2월 3.1%, 3월 3.3%, 4월 3.2%, 5월 3.5%, 6월 3.7%로 상승세 지속

<소비자 및 근원물가 추이>



자료 : 통계청.

<소비자물가 부문별 기여도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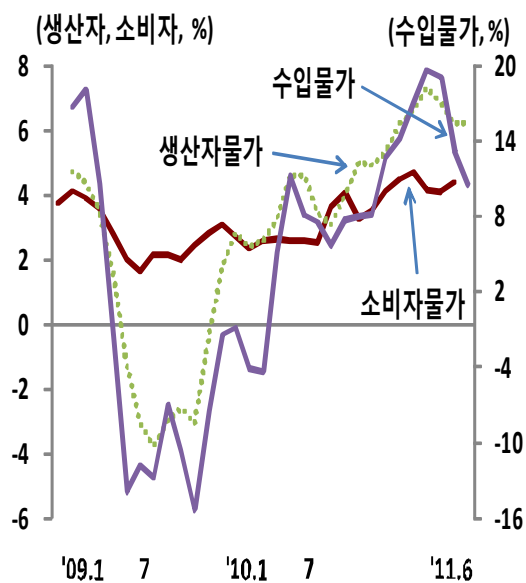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통계청.

-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높은 수입 물가는 생산자 물가, 소비자 물가에 순차적으로 상승 요인으로 작용
 - 물가 전이 과정 :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수입 물가가 높은 수준 기록. 이로 인한 수입 비용 증대는 생산자 물가 상승 그리고 시차를 거쳐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으로 이어짐
 - 수입 물가는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 등으로 2010년 12월 전년동월대비 12.7%를 기록한 후 2011년 5월 13.2%, 6월 10.5%로 7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음
 - 생산자 물가는 수입 비용 증대 등으로 인해 2011년 1월 전년동월대비 6.2%를 기록한 이후 2011년 6월에도 6.2%를 기록하여 6개월 연속 6.2%이상을 기록함으로써 향후 소비자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
 - 이러한 높은 수준의 수입 및 생산자 수준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큰 폭을 상회함으로써 향후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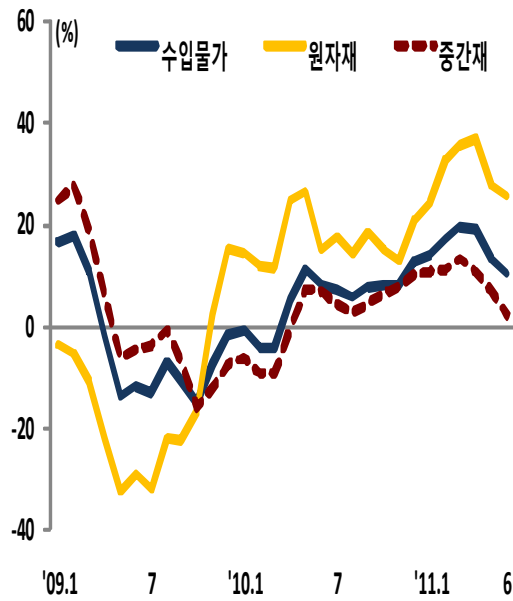
- 특히, 수입 물가 세부 항목 중 원자재 가격 지수가 20%대 이상을 지속하고 있어 국내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
 - 원자재 수입 물가 지수는 2010년 12월 전년동월대비 20.9%에서 2011년 6월 25.6%로 7개월 연속 20% 이상을 기록하여 수입 물가 상승의 주 요인으로 작용

<수입, 생산자, 소비자 물가 추이>



자료 : 통계청.

<수입 물가와 세부 항목 추이>



자료 : 통계청.

2. 3/4분기 물가 요인의 상호 상승작용 우려

□ 3/4분기 물가 상승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,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 요인의 상호 상승 작용 확대가 우려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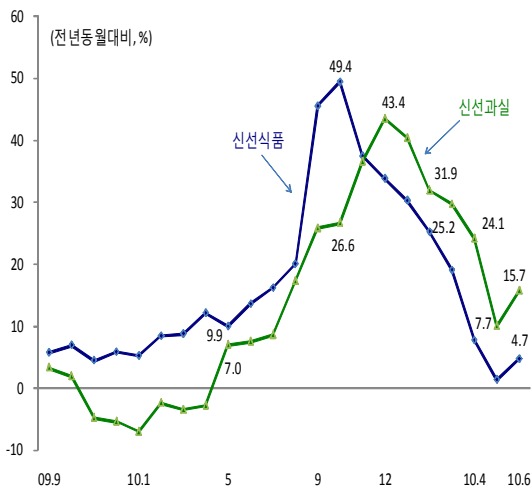
- 특히 수해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재급등, 공공요금 인상 등 영향으로 다른 부문으로의 물가 인상 전이 효과가 우려됨

① 비용 인상 측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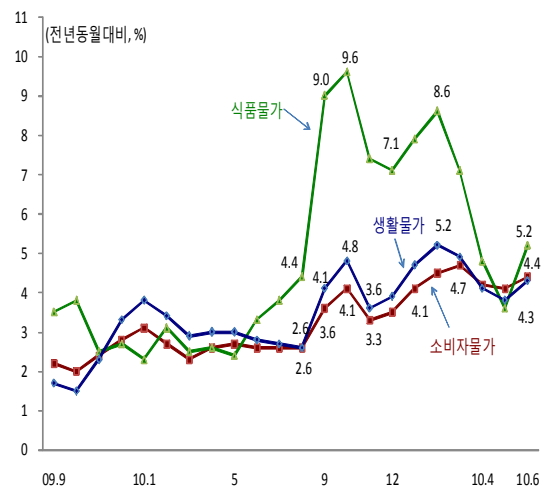
○ 국내 식료품 및 농산물 가격 재상승 가능성

- 국내 기상이변으로 인해 신선과실 등 식료품 가격이 재상승하고 있음
 - 이상 가후 등 영향으로 신선과실 물가지수가 2010년 12월 43.3%에서 2011년 5월 10.0%까지 하락하였으나 6월 현재 15.7%로 재상승
- 채소 및 과일 등을 포함한 신선식품 물가지수도 소비자물가 대비 높은 수준이고 급등세를 보일 것임
 - 신선식품 물가지수는 2011년 5월 1.3%에서 6월 4.7%로 재상승
 - 신선식품을 포함한 식품물가도 6월 5.2%로 소비자물가를 크게 상회
 - 체감물가인 생활물가는 2011년 6월 4.3%로 소비자물가 수준을 기록

< 신선식품 및 신선과실 물가지수 증감율 추이 >



< 소비자, 식품, 생활 물가지수 증감율 추이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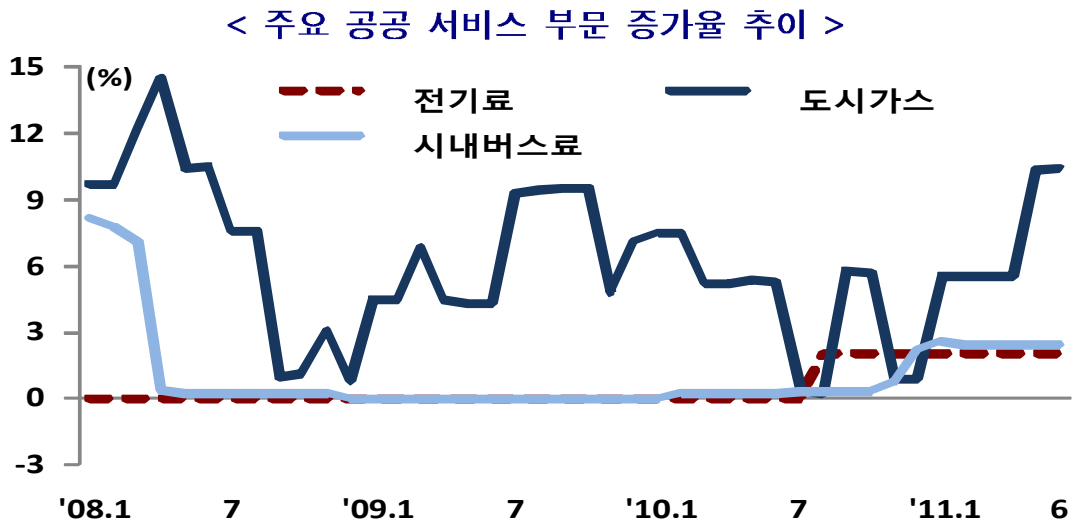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통계청.

- 1) 신선식품은 채소·과일 등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1개 품목으로 작성
- 2) 생활물가는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52개 품목으로 작성.
- 3) 식품물가는 식료품, 차와음료, 주류, 외식에 해당하는 일부 품목으로 구성.

○ 원가 상승으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 여파

-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은 높은 수준의 인상이 예상됨
 - 전기 요금은 2010년 8월에서 2011년 6월까지 전년동월대비 2.0%로 동결되었으나 2011년 8월 1일부터 4.9%로 증가율이 조정됨
 - 도시가스 요금 증가율은 2010년 8월에서 2011년 4월까지 0.2%에서 5.8%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5월과 6월에 각각 10.3%, 10.5%로 높은 수준을 지속
 - 시내버스 요금은 최근 5개월간 전년동월대비 2.4%를 유지



자료 : 통계청.

- 공공요금 인상은 상품의 원가 상승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 요인으로 작용
 - 공공요금이 10% 상승하면 생산자물가는 1.85%, 소비자물가는 2.24% 상승함으로써 소비자물가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침

< 공공요금의 물가파급효과 >

구분	생산자물가	소비자물가
공공요금 10% 상승	1.85% 상승	2.24%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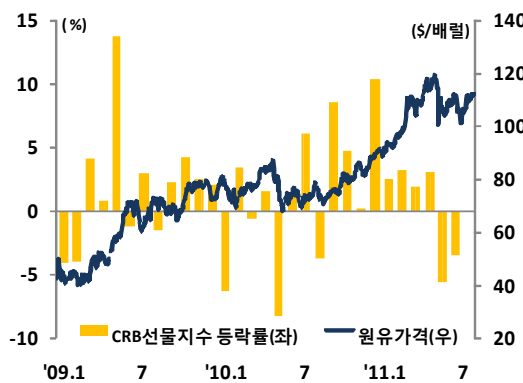
자료 : 한국은행 “알기쉬운 경제지표해설”, 2010년.

주 : 2005년 산업연관표에 의한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한 파급효과임. 산업연관모형에 의해 측정된 결과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 상승 요인 흡수, 경쟁상황 및 정부의 가격규제 등을 감안하지 않은 최대 변동 압력임.

○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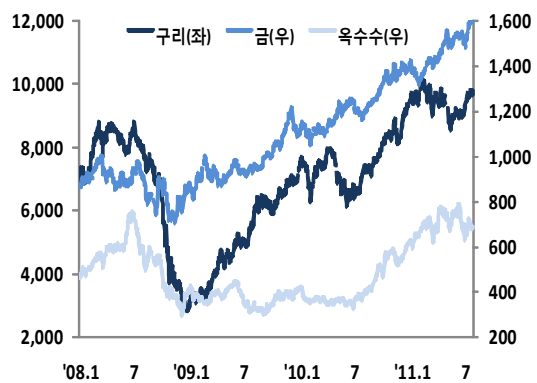
- 대외의존도 비중이 큰 국내 경제 특성상 국제 유가와 각종 원자재가격 상승은 수입물가, 생산자물가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짐
 - CRB선물지수는 2011년 2월에 전월대비 3.3%, 4월 3.1% 상승에서 5월 -5.3%, 6월 -3.4%를 기록함으로써 원자재 시장의 불안을 뒷받침 하고 있음
 - 2009년 상반기에 40달러 내외의 가격을 유지하던 원유 가격은 상승세가 지속되어 브렌트(Brent)유는 2011년 7월 말 배럴당 118.17달러, 두바이(Duhai)유는 배럴당 112.31달러를 기록. 서부텍사스(WTI)유는 99.58달러 기록.
 - 경기와 가장 관련이 큰 구리가격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톤당 9,800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안전자산 선호 증가로 인해 금값은 2011년 6월말 온스당 1,600달러를 상회
 - 옥수수 가격은 이상 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 및 재고 부족으로 2011년 3월 초 부셸당 700센트를 돌파하며 32개월래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7월말 689센트를 기록
- 국제 원유 가격 상승으로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국내 물가 불안에 기여
 - 두바이유는 7월말 배럴당 112.31달러로 2011년 1월 92.55달러 대비 21.4%, 2010년 12월 88.95달러 대비 26.3% 상승
 - 국제유가가 10% 상승 시 국내 소비자물가가 0.2%p 상승만큼 영향을 줌¹⁾

<CRB선물지수 등락률 및 원유가격>



자료 : Reuters, Petronet.
주 : 원유가격(\$/bb).

<원자재 가격 추이>



자료 : Reuters, LME(London Metal Exchange).
주 : 구리(\$/ton), 금(\$/Oz), 옥수수(¢/bu).

1) 한국은행, “유가상승 충격의 요인 분해와 시사점”, 2008년 4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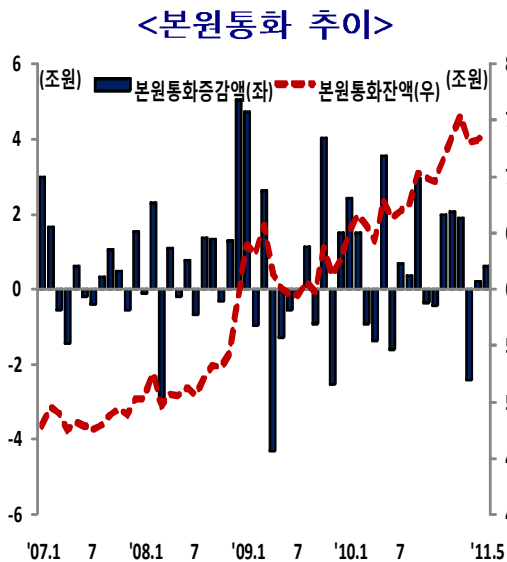
② 수요 견인 측면

○ 국내 통화량 및 통화유통속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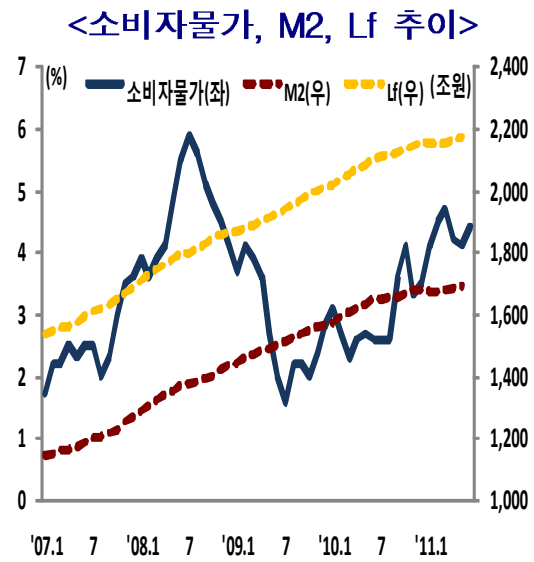
- 2011년 국내경제는 유동성 요인에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잠재
 - 금융위기 이후 정책당국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지원한 결과 최근 본원통화량은 과거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
 - 금융위기 이전 50조 원 이하 수준에 머물던 본원통화는 2008년 3/4분기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최근 73조 원을 상회

- M2(광의통화, 평잔기준) 규모는 2011년 4월 1,691조 원으로 전년동월 1,631조 원 대비 3.7% 증가
 - 정책당국이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통화 공급을 증가시키며 M2와 Lf (금융기관유동성)의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소폭 감소하는 추세
 - M2 증가율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 인플레이션 위험은 여전히 상존

- 국내 통화유통속도²⁾는 2분기 연속 증가세를 유지
 - 2010년 3/4분기 0.711에서 2011년 1/4분기 0.730으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2008년 3/4분기 0.749보다는 낮지만 완만한 증가세 지속



자료 : 한국은행.
주 : 본원통화잔액은 평잔기준.



자료 : 한국은행.
주 : M2와 Lf 잔액은 평잔기준.

2) 통화유통속도 = 명목GDP/M2. 분기 중 통화유통속도는 연간으로 환산함 수치임.

3. 시사점과 대응 과제

○ (시사점) 3/4분기에도 농산물 가격 재급등, 하반기에 집중된 공공 및 개인 서비스 부문 요금 인상, 전월세 가격 상승 등 비용 측면의 물가 요인의 상호 상승작용으로 인해 진정 국면을 보이던 물가가 다시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

- 농산물 가격 재급등, 하반기에 집중된 공공요금 인상 등을 인한 물가 인상 전이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미시적인 대응 과제를 통해 물가 불안을 완화시켜야 할 것임

· 비용 측면 물가 상승 요인은 국내 식료품 및 농산물 가격 재상승, 공공요금 인상,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 지속 등임

· 수요 견인 측면의 물가 상승 요인은 국내 통화량 및 통화유통속도 증가 임

- 거시적 대응 과제 중에서 금리 인상, 원/달러 환율 하락 등 방안은 긍정과 부정 요인을 모두 고려한 후 사용

· 물가 불안에 방안으로 금리 인상, 원/달러 환율 하락(원화 가치 상승) 등 방안은 유동성 축소, 수입 물가 하락 등으로 물가 하락에 기여함

· 하지만 금리차를 통한 자금 유입 증대, 수출 가격 경쟁력 하락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 전체에는 부정 요인도 발생

○ (미시적 대응 과제)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화, 기업의 생산성 향상, 물자 절약 문화 정착 등 정부, 기업 그리고 국민 의식 제고를 위한 과제 필요

① 정부의 과제

- 농축수산물 적정 공급량의 사전 확보를 통한 가격 안정화

·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급량을 예측하여 냉동 및 저온 창고, 해외 집단 재배 단지를 이용하여 수급 조절

· '파머스마켓(Farmer's market)'과 같은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여 싱싱하고 값싼 농산물은 소비자에게 공급. 지자체에서는 직거래 장터를 위한 장소를 제공

- 공공 서비스 부문 서비스 및 요금의 세분화 및 소액화를 통해 가격 인상 요인 약화 유도

- 가격 상승 단위를 이전보다 소액화하여 완만한 인상 효과 유도. 기존에 1000원, 2000원 등 단위로 올렸다면 100원, 150원 등으로 소액화하고 인상 비율도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.
- 통신비의 경우, 기본요금 인하 및 선택서비스 확대를 통해 가격 인하 유도
- **전세 수급 조정, 주택 거래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 가격 안정화 유도**
 - 재건축, 재개발 아파트 등의 수급 및 시기 조절을 통해 전세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함
 - 주택시장에서 대기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지 않도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금융지원하고 취득세, 양도세를 줄여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

② 기업의 과제

- **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 인상 요인 차단**
 - 기업의 경영 혁신 및 원가 절감 노력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 차단
 - 기업 제품에 할인 쿠폰 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하여 제품 가격 인상 요인 완화
- **개인 서비스 부문의 서비스 및 가격의 차등화를 통한 가격 안정화 유도**
 - 음식점 등에서는 종합서비스(full plan)와 선택서비스(cafeteria plan)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가격 차별화 및 가격 인하
 - 음식점의 밑반찬 숫자 줄이기 등을 식재료비 절감 노력 유도
 - 공공 식당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음식 주문량 단위를 다양화하여 외식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 제공

③ 국민 의식

- **소비 문화 및 의식 선진화를 통한 물자 절약 문화 정착**
 - 에너지 절약 캠페인 및 절약 문화 정착
 - ※ 하절기 넥타이 안매기, 동절기 내복 입기, 공공 건물 에너지 절감 등 실행
 - ※ 관용차의 소형화(2000cc 미만) 및 일반인의 소형차 타기 운동 전개
 - 생활 용품의 재활용 및 나눠쓰기 문화 확산
 - ※ 아름다운가게, 녹색가게 등을 통해 의류, 가전제품, 생활용품의 재활용
 - 에너지 및 물가 절약에 관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생활 문화 및 의식 고취

○ (거시적 대응 과제) 국제원자재 안정적 확보, 유통 구조 효율화 추진, 완만한 금리 인상 기조 등 방안 강구

- 국제원자재 안정적 확보 필요 : 장기공급계획에 근거한 원자재 구매 확대,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
 -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심리가 커지고 있어 국제원자재에 대한 헤지 필요
 - 국제원자재를 미리 구입하여 재고 충당, 선물 거래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비
- 지속적인 유통 구조 효율화 추진 : 식료품 등 가계 생필품에 대한 유통 구조 효율화, 가격 모니터 강화 등을 통해 가격 상승폭 최소화
 - “산지-운송-소비자”를 연결하는 효율적인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농산물 가격 상승폭을 최소화 유도
- 자본 유입 변동성 완화 유도 : 기존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등 자본유입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 개선
 - 기존의 선물환포지션 한도,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 및 외환건전성부담금 등의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시 보완책을 강구³⁾
- 완만한 금리 인상 기조 : 물가 상승 압력 완화를 위해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 회복 기조 및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등하지 않도록 세밀한 조율 필요

임희정 연구위원(2072-6218, limhj9@hri.co.kr)

3) 한국은행, “자본유입 급증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”, *Monthly Bulletin*, 2011년 7월.